

“제주항공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 무안공항 찾아 참배 유가족 호소 청취...‘부실 수습’ 추궁 “유해 수습 안전 확보·신속 재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지시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10분께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참배 전에는 분향소 입구에서 희생자 유가족 10여명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별다른 말 없이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눌 때 이 대통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는 말로 인사에 답한 유가족은 이 대통령이 추모를 마치고는 눈물을 흘리며 복받친 감정을 토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호소를 청취했고, 김규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상임위원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보고받으며 최초 ‘부실 수습’의 원인을 집중 질문했다.

특히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반문에 “추가로 발견된 유해가 (크기 등이) 상식적으로 볼 때 놓칠 수 없는 것이더라”며 “기준이 잘못된 것이냐, 기준을 안 지키는 것이냐”고 재차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는 문제 아니냐. 무심함(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울러 이 대통령은 현장 유해 수습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을 확보한 뒤 신속히 수습 작업을 재개할 것을 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무안공항 12·29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현장에서 유가족과 대화하며 건의문을 받고 있다. /김애리 기자

시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지연됐다. 유족이나 국민 경제를 위해 최대한 빨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독려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주변을 둘러보며 유가족과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부실 수습의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 수습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게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조사관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꾸 무슨 유착이니 이런 의심을 받고 이러니, 사고가 나면 해외에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 위탁을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전문 집단에 아예 맡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들이 항철위에 대한 불신을 거듭 토로하자 “부족한 점을 채워서라도 해야지, 못 믿겠으니 하지 말라고 하면 영원히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달랬다.

한 유가족이 “1년6개월간의 갈등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한번 빨리 와보려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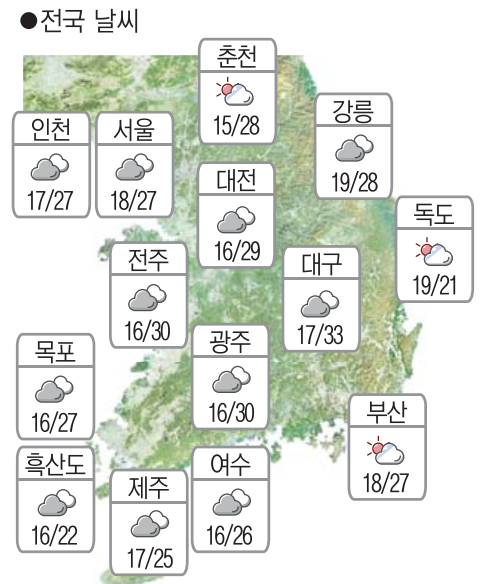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지난 3월 유해 수습과 부실 수습의 엄중 문제를 지시해주셔서 1년간 방치됐던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게 된 점을 감사드렸다”며 “유가족들은 오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란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복합적인 참사 원인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지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해질 19:32 🌙달돋이 07:09 달짐 22:42

●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많음	16/30	장성	구름많음	14/29
목포	구름많음	16/27	보성	구름많음	13/26
여수	구름많음	16/26	함평	구름많음	14/28
나주	구름많음	14/29	순천	구름많음	15/29
완도	구름많음	15/26	영광	구름많음	14/28
구례	구름많음	14/29	진도	구름많음	15/24
강진	구름많음	14/27	흑산도	구름많음	16/22
해남	구름많음	12/27	고흥	구름많음	13/27
광양	구름많음	15/29	담양	구름많음	14/29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해 앞바다(북)	0.5-1.5	0.5-1.5
남해 앞바다(남)	0.5-1.5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0.5	0.5-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0.5-1.0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0.5-1.0	0.5-1.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3:59	09:07	10:37	04:37	11:10	05:50		
	15:54	21:06	여수	23:22	16:39	녹동	--:--	11:37

● 생활정보지수

- 👜 **니들이 70** 🚗 **세 차 40**
- 🧼 감기 조심해요 🚗 차 내부정돈이 좋아요
- 🧤 **빨래 60** 🏃 **운동 50**
- 🧺 실외건조 좋아요 🧺 준비운동은 충분히

● 주간 날씨

20일(수)	21일(목)	22일(금)
☁(19/24)	☁(17/23)	☁(16/26)
구름비	비온뒤 맑음	구름조금
23일(토)	24일(일)	25일(월)
☁(15/25)	☀(15/29)	☀(16/30)
구름조금	맑음	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전남대 정문에 ‘5·18 기억의 정원’ 조성

부조 작품 기록화...역사문화공간 거듬

5·18민주화운동의 최초 발원지 중 한 곳인 전남대학교 정문에 ‘기억의 정원’이 조성됐다.

전남대학교는 18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억의 길, 치유의 공원’을 주제로 전남대 정문 일원에서 ‘전남대학교 5·18 기억의 정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기억의 정원에는 전남대와 전남대 총동창회가 1980년 5월18일 당시 전남대 정문 앞의 역사적 현장을 부조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했다.

행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근배 총장, 안도걸·정진국 국회의원, 류혜경 총동창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의 사회로 ▲기억의 정원 소개 ▲조성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부조 제작식 및 작품 소개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5·18 기억의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기억하고 치유와 성찰의 가치를 나누는 역사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활용’ 공모전

영상·글·그림 등 3개 분야...18편 선정

전남도교육청이 ‘2026 전남학생교육수당 활용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활용한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발굴·공유하고 교육적 의미와 정책 효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이며,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공모는 ▲영상(숏폼·브이로그·애니메이션 등) ▲글(체험수기) ▲그림(포스터·네컷만화 등) 등 3개 분야다.

공모 내용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활용한

진로·꿈 성장 사례 ▲학생교육수당 활용 이후 변화된 생활 모습 ▲친구와 함께 협력적으로 활용한 경험 ▲기타 창의적 활용 사례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모전에 게시된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이메일(epxltm30@korea.kr) 또는 우편(무안군 어진누리길 10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6월24~26일 사이 발표될 예정이며, 분야별로 초·중·고 각 1개 작품씩 총 18편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최우수상은 20만원, 우수상은 10만원, 장려상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박선욱 기자

구례군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이 혜택으로

기부명소 구례! 혜택맛집 구례♡

문의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307